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6월 1일 금요일 (음 4월 18일)

제206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공식 선거운동 첫 날... 전주시장 후보자 거리유세 '후끈'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31일 전주시장 후보인 김승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 왼쪽부터), 이현우 민주평화당 후보, 오형수 정의당 후보가 아침부터 거리에 나와 시민에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엠 군산공장, 역사의 뒤편길로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연 지 22년 만에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게 됐다. (관련기사 7면)

지엠 군산공장은 지난 31일 공장을 폐쇄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들도 이날을 기점으로 모두 퇴직 절차가 마무리된다.

군산공장 폐쇄는 지난 2월 제네랄 모터스(GM) 본사가 폐쇄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폐쇄 발표가 나온 뒤부터 군산공장은 대부분 가동을 중단해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에 들어갔다. 군산공장의 폐쇄로 이곳에서 생산하던 크루즈와 올란도는 단종 상태에 들어간다.

군산공장은 1996년 대우자동차 공장으로 역사를 시작했다. 그해 12월 '누비라 1호차'를 생산한 데 이어 레조와 누비라2를 내놨다.

제네랄 모터스(GM)가 회사를 인수한 2002년부터는 사명을 'GM 대우'로 2011년에는 '한국지엠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꿨다. GM이 인수한 후 군산공장은 라세티와 라세티 프리미어, 쉐보레 올란도, 올 뉴 크루즈 등의 생산을 맡았다.

군산공장은 군산 앞바다를 매립해 만든 129만㎡(약 39만평)의 부지에 연간 27만대 규모의 완성차 승용차 생산 능력을 보유한 한국지엠의 생산기지였다.

2월 지엠 본사의 폐쇄 결정 따른 조치... 지역경제 '비상'

희망퇴직 신청하지 않은 잔류 인원 612명 중 200여명

부평 등에 우선 전환배치 나머지는 3년간 순차적으로

지역사회선 OEM 방식으로 올 뉴 크루즈 생산 목소리도

차체-프레스 공장, 도장-화성공장, 조립공장, 디젤엔진공장, KD 공장 등 7개의 주요 단위 공장과 주행시험장, 출고장, 5만톤급 수출전용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자동차 수출전용부두도 함께 갖췄다. 이곳에서 생산된 차량은 모두 이 수출전용부두를 통해 130여개국으로 팔려나갔다.

자동차산업의 불모지였던 전북에 대규모 자동차 공장이 지어지자 지역 경제에도 파급효과가 상당했다. 설립 후 20년 가까이 협력업체 130여곳과 함께 1만2000여명을 상시 고용했다. 전북 수출의 30%, 군산 수출의 절반 이상을 도맡기도 했다.

이곳에서 생산하던 차량이 잘나가던 시절에는 배정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밤낮 없이 생산 활동에 집중할 정도였다.

2011년 26만대의 차량을 생산하며 최고점을 찍었던 군산공장은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 철수와 세계경기 침체,

내수판매 부진 등으로 생산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폐쇄설, 위기설이 나돌자 군산시와 시민들이 나서서 군산공장 폐쇄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쉐보레 브랜드가 유럽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면서 군산공장의 생산물량은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2016년부터는 공장 가동률이 20%대로 떨어지고 수출비중도 크게 낮아졌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4월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데 합의하고 신청한 직원들에 한해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남은 직원들은 향후 3년간 부평이나 창원공장에 전환배치하기로 했다.

군산공장은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잔류 인원은 612명이다. 한국지엠은 이들 중 200여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부평, 창원 공장이나 기타 부문에 전환배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400여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순차적으로 전환배치할 예정이다. 휴직에 들어간 뒤 첫 6개월은 정부에서 생계보조금을 지원하고 이후 30개월간은 노사가 반반 나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군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이었던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가 초토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군산의 젓줄로 통하던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를 이끌던 양대 공장이 모두 사라졌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자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 상권도 무너져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부족하다는 게 지역사회 평가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산공장 부지 활용'을 유일한 대안으로 꼽으며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군산공장에서 올 뉴 크루즈를 생산하라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6·13 지방선거 D-12...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북도내 표심은 어디로

12일까지 13일간 펼쳐... 민주당 등 정당후보 포함

무소속 출사표 던진 후보자들도 거리에서 유세 펼쳐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31일 시작된 가운데 후보자들의 열띤 선거유세가 펼쳐지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이날부터 투표 전날인 12일까지 총 13일간 펼쳐진다.

전북지역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시·군 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총 252명을 선출하게 되는 데 유권자들의 선택은 누구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등 각 정당 후보들을 비롯해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저마다 거리에서 유세를 펼쳤다.

특히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다는 각오이며,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일당 독주를 막고 견제와 균형을 있어야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며 지지를 적극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합

동 기자회견을 열고, 출정식을 열었다. (관련사진 2면)

이 자리에서 김윤덕 민주당 전북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우리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가장 잘 아는 후보들이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정부를 뒷받침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물론도 민들의 삶이 훨씬 나아지게 될 것이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평화당도 이에 걸세라 전북대학교 구(옛) 정문 앞에서 출정식 겸 합동유세를 열고 표심 얻기에 나선다.

이외 각 정당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들도 유권자가 많은 장소를 선정(?) 유권자들에게 얼굴 알리기에 시동을 걸었다.

이밖에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김승환·서거석·이미영·이재경·황호진 후보 등 총 5명의 후보들도 '전북 교육을 이룰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습니다.

매일 INDEX

12면 -레드콘 2기 참가 뮤지션 모집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